자유기업경제에서 이윤과 손실은?  
1. 비효율적인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채찍이다.  
2. 적절한 결정에 대해 보답(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당근이다.  
3. 1번 2번 모두 옳다  
4. 이윤과 손실은 항상 0과 같다

이윤과 손실은 효율성과 기업의사결정의 기준임﻿﻿.

미시경제학은 반독점정책과 관계하고 있다. ~~O~~  
미시경제학은 최적생산결정﻿﻿, ﻿﻿가격정책﻿﻿, ﻿﻿최적자원배분﻿﻿, ﻿﻿반독점정책 등과 관련있는 분야이다﻿﻿.

아스파라가스의 시장수요선과 시장공급선이 톤당 p\*와 Q\*에서 설정되었다고 가정하라. 그림은 각자 그려볼 것. 참고: 수요선은 우하향, 공급선은 우상향의 직선임. 정부가 최저가격을 P\*보다 2배 높은 톤당 2P\*와 로 설정했다면, 결과는?  
1. 아스파라가스의 공급량은 감소될 것이다  
2. 아스파라가스의 초과공급  
3. 아스파라가스에 대한 시장공급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함  
4. 위 123 모두 해당.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형상 발생

커피의 가격이 증가한다면 차(tea)의 시장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X  
커피와 차는 대체재임. 커피의 가격이 증가하면 커피의 수요는 감소함. 대체재인 차의 수요는 증가하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따라서 차의 가격이 올라감.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 가격은 비탄력적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1 가격탄력성이 1이면  
2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3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4 123모두아님

1 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 보다 크면 탄력적. \* 주의: 수요의 경우 – 부호가 붙음. 따라서 문제에서는 절대값을 의미함.

어떤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값이 무한대라면 이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 재화의 균형가격은 감소할 것이다. X  
완전탄력적임. 수요곡선은 평행선,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 가격불변.

제품의 수가 오직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하라. 두 개의 제품이 있는 무차별곡선상의 점B는 무차별곡선상의 점A의 위에 그리고 우측에 있다면 그리고 점A를 거치는 무차별곡선의 성격이 1의 효용수준이라면 점B를 거치는 무차별곡선의 효용수준은?  
1 1보다 크다  
2 1과 같다  
3 보다 작다  
4 0과 같다

무차별곡선상의 점B가 무차별곡선상의 점A의 위에 그리고 우측에 있다면 효용(만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무차별곡선의 모양(형태)은 가격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O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효용(만족)을 나타내는 곡선임.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문제: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이 일치하는 평균생산량은?



1 최대값이 1/2일때  
2 최대값이 1/4일때  
3 최대값이 같을때  
4 최대값의 1과 1/2배일때

한계생산=산출량변화분/투입량변화분, 평균생산=산출량/투입량

어떤 재화가 Giffen(기팬)재라면 이 재화는 열등재이어야 한다. O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플러스 즉,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떨어지는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기펜재가 되려면 (1) 일단 열등재이어야 하며, (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야 한다.  
대체효과란 재화의 상대가격 변동으로 생기는 효과.

어시장에 활어를 공급하는 시장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완전비탄력적이다. 활어를 공급하는 생산자에게 조세(종량세)를 부과할 경우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조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2 조세는 소비자가 모두부담하게 된다  
3 시장균형가격은 조세 부과 전보다 상승하며 상승폭은 조세 부과액만큼 상승한다  
4 시장균형가격은 조세 부과 전보다 상승하지만 상승폭은 조세 부과액보다 적다.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즉 수직) 조세를 부과한다고해서 공급곡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균형가격이 오르진 않고, 그냥 조세의 증가를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보다 완만한 형태이다. O  
일반적으로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보다 완만한 형태이다. 즉,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보다 탄력적이다.

어떤 때 독점적 기업은 산출량을 확장하는가?  
1.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을 초과할때  
2. 한계비용이 한계수입을 초과할때  
3. 한계비용이 한계수입과 같을 때  
4. 한계수입이 음일 때\*(마이너스)

독점적 기업의 균형(가격 및 산출량)은 한계수입(MR)=한계비용 (MC). 이렇게 될 때까지 산출량을 확장한다.

전력산업은 자연독점이다. O  
공기업의 대부분은 자연독점인데 이는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A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A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한다.  
2. 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가 직선이 된다.  
3. 공장의 크기를 두배로 하면 생산량이 두배가 된다  
4. 모든 투입요소를 두배로 늘리는 경우 생산량도 두배로 증가한다.

규모의 경제란 공장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매우 큰 산업에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물 단위당 원가(평균원가)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평균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분업을 통한 근로자들의 전문화와 기술적 요인 등에 기인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생산요소(투입요소)를 두 배로 늘리면 생산량은 두 배를 넘게 된다.

경제적 이윤이 0이어도 정상이윤은 존재한다. O  
경제적 이윤이 0이어도 정상이윤은 존재한다. 단, 기회비용을 ‘광의’로 정의하면 기회비용=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협의’로 정의하면 기회비용=암묵적 비용

만약 완전경쟁산업이 독점화된다면 결과는?  
1.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  
2.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아직 충족된다.   
3.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이전의 그 경우보다 더욱 더 충족된다.   
4.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경쟁하의 가격은 재화의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즉 가격이 비싼 생산요소나 생산물일수록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희소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경쟁하에서는 이처럼 희소성의 척도인 가격에 의해 재화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후생경제학의 측면에서 '최적자원배분'이라 할 수 있다. 완전경쟁을 전제할 경우 가계나 기업 모두 생산물과 생산요소 사이의 한계대체율은 양자의 가격비와 일치한다. 그런데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최적 자원 배분을 위한 한계조건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

파레토기준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돈은 ‘향상’을 나타낸다.  
O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는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익을 보는 사람만 있는 경우를 '사회적 개선'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개선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또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선된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불만을 사는 일 없이는 자기 만족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파레토 최적'인 셈이다. 예를 들면, A가 빵과 콜라 전부를 독차지하고, B는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파레토 최적'이다. B를 위해 A가 가진 빵과 콜라를 뺏어온다면 A의 만족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파레토 최적'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수준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을 유발한다.   
2.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을 유발한다.  
3. 임금수준을 상승시킨다.   
~~4. 노동시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최저가격제란 정부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예: 최저임금제도와 농산물가격지지제도). 이 때 최저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을 때만 의미를 가지며(실업발생,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 임금상승) 만일 균형가격보다 최저가격이 낮으면 균형가격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노동시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은 노동이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X  
노동과 여가를 정상재로 간주한다. 대체효과: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소득효과: 임금의 상승은 실질소득의 증가로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를 증가시켜 근로시간을 감소시킴. 임금상승=대체효과(+) + 소득효과(-), 임금상승효과: 소득효과 > 대체효과. 즉 임금의 상승으로 여가가 늘어남.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주식배당은 순자산의 유출이 없이 배당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주식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변동이 없다.  
3. 미교부주식배당금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을 말하며 주식교부시에 자본금계정과 대체된다.  
4. 주식배당 후에도 발행주식수는 변동이 없다.

주식배당 후에는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분산투자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한다. O  
분산투자 방법은 구성자산(종목)수를 늘리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다음은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것은?  
1. 물가지수는 생산자 및 소비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실제로 주고받는 값의 변화를 측정한다.  
2. 물가지수는 여러 가지 상품 또는 일련의 행동이 지니는 가치의 변화를 측정한다  
3. 개별지수는 한 개의 대상변수에 대한 변화를 측정한다  
4. 종합지수는 여러 개의 대상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변화를 측정한다.

2 는 물량지수를 말한다. 물량지수는 생산량이나 출하량 등 물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공급경제학은 조세감면을 중시한다. O  
Say, Feldstein 등이 대표적 학자들임. 미국 게이건대통령 당시에 조세감면을 통해 총공급을 확충하여 성공한 정책임.

다음 정책 중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은?  
1. 정부지출감소  
2. 이전지출감소  
3. 개인소득세증가  
4. 개인소득세감소

개인소득세를 감소시키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가 늘어난다. 즉 총수요는 늘어난다.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은 생산요소들에 의해 벌어들인 소득이다 O  
생산요소들은 노동, 자본 등이 있다.

다음 중 맞지않은 것은?  
1. GDP 갭(gap)이란 잠재GDP와 실질GDP의 격차를 말하며, 총생산갭이라고도 한다  
2. GDP 갭이 양(+)이면 실질GDP가 잠재GDP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갭이다  
3. 인플레이션 갭상태에서는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총수요 억제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경우 물가가 반드시 하락한다

디플레이션갭이 존재한다고 해서 물가가 반드시 하락하지는 않는다.

두 개의 단순모형에서 C(소비)=a+cY(소득), 따라서 S(저축)=-a+(1+c )Y가 된다. O  
C(소비)+S(저축)=1임을 생각하면서 풀어볼 것.

다음 중 물가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총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환율의 변화  
2. 생산성의 변화  
3. 이자율의 변화  
4. 소득세의 변화

총수요(Yd)는 소비+의도된 투자+정부지출+순수출로 구성된다. GDP(Y)＝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이므로 결국 GDP(Y)＝총수요(Yd)+의도되지 않은 투자(재고)이다. 세로축을 물가, 가로축을 산출량으로 하는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즉 물가가 하락하면 수요량이 수요곡선상을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총수요를 구성하는 다른 변수, 즉 소비 의도된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등이 변할 경우 총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함으로써 수요량이 변하게 된다. 환율 이자율 소득세 미래소득수준에 대한 기대의 변화는 모두 총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생산성의 변화는 총수요곡선이 아니라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균형예산승수는 1과 같다. O  
균형예산승수는 항상 1이 된다.

구조적 실업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최저임금제  
2. 실망실업  
3. 노동조합  
4. 효율임금

최저임금인상제, 노동조합, 효율임금 등은 구조적 실업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새 집을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구할 수 없는 목수는 계절적 실업으로 분류한다. O  
시기와 계절에 따라 생산물이 감소하여 그 산업 종사자들이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지속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다음의 표는 A국의 명목GDP와 GDP디플레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실질GDP가 가장 큰 연도와 가장 작은 연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연도 | 명목GDP (단위:억원) | GDP 디플레이터 |
| 2010 | 5,000 | 100 |
| 2011 | 5,200 | 105 |
| 2012 | 5,600 | 110 |

1. 2012/2011  
2. 2012/2010  
3. 2011/2010  
4. 2010/2011  
2010년의 실질GDP=5,000: 5,000/100, 2011년의 실질GDP=4,952: 5,200/105, 2012년의 실질GDP=5,091: 5,600/110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O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다음 중 환율상승 요인이 아닌 것은?  
1. 국내물가상승  
2. 자본유출증가  
3. 해외경기호황  
4. 국내이자율의 하락

환율이 상승하려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감소해야 한다. ① 국내물가 상승 → 순수출 감소 → 경상수지 악화 → 환율 상승 ② 자본유출 증가 → 자본수지 악화 → 환율 상승 ③ 해외경기 호황 → 수출증가 → 경상수지 개선 → 환율 하락 ④ 국내이자율 하락 → 자본순유출 증가 → 자본수지 악화 → 환율 상승

환율이 평가절하(또는 환율상승: depreciation or devaluation)되면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X

수입감소, 수출증가, 물가상승

다음 글은 소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 글은 어떤 가설을 설명하고 있는가?

소비는 오직 현재 소득(처분가능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타인의 소비행위와는 독립적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의 재량적인 조세정책이 경기부양에 매우 효과적이다.

1. 절대소득가설  
2. 항상소득가설  
3. 상대소득가설  
4. 생애주기가설  
절대소득가설’은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장한 소비이론이다. 현재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 이외 요인은 소비에 2차적인영향만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소비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소득에만 큰 비중을 두고 금융자산, 이자율, 장래소득의기대 등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변수는 간과했다는 지적이 있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경제학자밀턴 프리드먼은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적인변동소득으로 구분해 항상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다음 중 자본재 가격, 실질금리 및 감가상각률 등을 투자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이론은?  
1. 신고전학파 이론  
2. 고전학파 이론  
3. 케인즈학파 이론  
4. 가속도 이론

고전학파나 케인즈의 투자이론(현재가치이론, 한계효율이론)이 이자율을 중시하고, 가속도 이론은 산출량의 변화를 중시하는데 비하여 신고전학파는 산출량 수준, 자본재 가격, 실질금리 및 감가상각률을 투자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유량(flow)변수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로 GDP,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등이 해당되고, 저량(stock)변수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로 통화량, 국부 등이 해당된다. O  
유량(flow)변수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로 GDP,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등이 해당되고, 저량(stock)변수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로 통화량, 국부 등이 해당된다.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넉시 - 균형성장론  
2. 허쉬만 - 불균형성장론  
3. 로스토우 - 경제발전 5단계설  
4. 해로드와 도마 -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설  
해로드와 도마의 성장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불안정하게 된다.

균형성장론은 어떤 한 선도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에 연쇄반응적인 효과를 미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선도산업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X

이는 허쉬맨(Hirschman)이 주장한 불균형성장론이다.

IS-LM모형에서 통황당국이 통화공급을 줄이게 되면 사람들은 채권을 ㉠ 하므로 이자율이 ㉡ 하고, 투자와 소득이 ㉢ 한다.  
1. 매각 상승 감소  
2. 매입 상승 감소  
3. 매각 하락 증가  
4. 매입 하락 증가

통화량 감소→채권 공급→채권가격하락→이자율 상승→소비․투자 감소

LM곡선은 이자율과 소득 간에 음(-; 네거티브)관계를 보여준다 X

양(+; 포지티브)관계를 보여줌

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필립스 곡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보다 가파르다.  
2.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3.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 필릅스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4.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간의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물가(인플레이션)와 일자리(실업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는 영국 경제의 실증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 사이에는 마이너스 상관관계(상충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 필립스 곡선이다.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필립스 곡선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즉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진다. 경제정책이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연실업률(자연실업률이란 구조적 실업을 포함한 광의의 마찰적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즉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긴축정책(인플레이션 갭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은 과열된 경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인상,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인상,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O

긴축정책(인플레이션 갭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은 과열된 경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인상,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인상,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시장 상황은?  
1. 물가가 상승할 때  
2. 금 가격이 상승할 떄   
3. 코스피지수가 상승할 때  
4. 시중 이자율이 하락할 떄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이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이다. 채권은발행 당시에 보유자에게 돈을 상환하는 시기인 만기일,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금인 액면가, 정해진시기마다 지급하는 이자 등이 정해진다.채권은 액면가대로 팔리지 않는다. A라는기업이 연 5%라는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자. 단 이기업이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조달금리는 연 10%다. 이 경우 사람들은 직접 A기업에대출을 해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액면가대로 채권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채권가격은 이자와 원금으로 구성된 ‘미래소득흐름’에 A기업의 조달금리와 같은 연 10%의할인율을 적용해 구한 현재가치까지 떨어진다. 채권가격은 액면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거꾸로조달금리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가격은 액면가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조달금리는 채권의 수익률과 같다. 그리고 채권가격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낮다. 채권가격은시중 이자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시중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소득흐름의 할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따라서시중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된다. 물가가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코스피지수가 상승하면 채권시장에 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A는 은행 저축예금에 10만원을 예금하였다. 단, 은행저축예금의 1년 동안 복리 이자율은 10%이며 6개월 마다 지급된다. A가 1년 후 저축예금 만기에 받을 이자금액의 한계는 1만 250원이다. ~~O~~

이자계산법에는 복리와 단리가 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계산되지만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원리금에 이자를 계산한다. 10만원 예금의 복리 이자율이 10%이고 6개월 마다이자가 지급될 때, 6개월 후 이자는 10만원×10%×(6개월÷12개월)로 5000원이다. 다시 6개월이 지난 후 이자는 10만5000원×10%×(6개월÷12개월)로 5250원으로 만기에 받을 총이자는1만250원이다.

경기순환에서 성장의 장기추세선 위에 있을 경우(호경기)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소득세율 인상  
나. 기준금리 인하  
다. 정부의 공공 투자 확대  
라. 통화공급 축소

가, 라

경제가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는 것을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경제상황이 성장의 장기추세선 위에 있으면(또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호경기, 아래 있으면(또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불경기다. 경기순환은 △투자와 생산이 크게 줄어 실업이 나타나는 침체기(slump) △침체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기업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회복기(recovery) △투자가 활발해지고 생산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호경기(또는 호황기·boom) △과잉 생산이 나타나고 재고가 늘어나는 후퇴기(recession)의 4개 국면으로 대개 나뉜다. 장기추세선 위에 있을 경우 경기가 과열되어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 가계도 소비를 늘리는 호경기(또는 호황기 boom)에 해당된다. 호황이란 경제 전체의 상황이 좋다는 의미다.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통화공급 축소와 소득세율 인상과 은행 대출 한도 축소는 민간소비와 기업활동을 둔화시킨다. 따라서 [보기]의 “가”와 “라”는 호황기에 필요한 긴축적 정책이다. 반면 침체기에는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진작하고 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정책이 집행된다. 따라서 [보기]의 “나”와 “다”는 침체기에 필요한 정책이다.

경기순환은 회복기-확장기(호경기)-후퇴기-수축기(침체기)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는 기간은 수축기(침체기)에 해당한다. 수축기에는 총수요가 감소하고 기업의 재고가 증가한다. O  
경기순환은 회복기-확장기(호경기)-후퇴기-수축기(침체기)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는 기간은 수축기(침체기)에 해당한다. 수축기에는 총수요가 감소하고 기업의 재고가 증가한다.

다음 중 기업들이 생각하는 업황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경제주체들의 경기예측에 유용한 지수는 무엇일까?  
1. 종합경기지표 CI  
2. 기업경기실사자수 BSI  
3. 경제심리지수 ESI  
4. 소비자동향지수 CSI

경기종합지수(CI)는 경기에 민감한 대응성을 보이는 몇 개의 대표계열을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나타냄으로써 경기국면의 파악 및 경기수준의 측정에 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지표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경기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및 계획 등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설문지를 통해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무역협회, 전경련 등에서 분기 또는 월마다 작성되고 있다. 경제심리지수(ESI)란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해 민간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일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종합심리지수입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소비자의경기에 대한 인식이 향후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기동향 파악 및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현재 및 장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전반의 상황과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이다.

경기종합지수의 구성지표로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가 있다. O

경기종합지수의 구성지표로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가 있는데 선행종합지수는 금융기관유동성, 기계수주액(선박제외), 건설수주액, 장단기 금리차, 순상품교역조건 등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선행 구성지표들을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예측과 앞으로의 경제활동을 예고하는 지수이며,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비농가취업자수, 도소매업판매지수, 수입액 등 경기순환과 동시에 변동하는 동행 구성지표들을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후행종합지수는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도시가계소비지출, 회사채유통수익률 등 경기순환보다 늦게 변동하는 후행 구성지표들을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되는 지수이다.